

컨벤션의 완성은 호텔인데 광주엔 특급호텔이 없다

광주 숙박 인프라 절대 부족에 노후화까지...마이스 산업 절대 취약
전·일방 부지도 5성급 호텔 난망...“호텔이 없으면 세계 행사는 없다”

광주 마이스(MICE) 산업의 취약점은 숙박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과 경쟁 도시에 뒤처지는 사실이다.

전국 주요 도시마다 신축 특급호텔을 내세워 국제행사 유치에 나서는 등 전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광주는 여전히 주변 숙박시설 부족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 등재된 관광호텔은 14곳으로, 숙박 공간은 1227실 안팎이다.

동구에는 무등파크호텔(110실), ACC DE-SIGN호텔(67실),아트하임(91실),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4층·95실) 등 소규모 호텔만 산재해 있다.

서구 역시 라마다플라자광주(4층·120실), 홀리데이인(4층·205실), 브라운도트(2층·59실) 등 일부 비즈니스형 숙박이 대부분이다. 대형 국제행사 등 컨벤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다.

북구와 광산구에 있는 중저가 관광호텔 역시 규모와 접근성, 객실 수준 면에서 기업·관광객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친다.

특급호텔이 부족하다는 점은 단순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대형 국제행사 유치 시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압도적 객실수 부족, 현대화된 부대시설 부재,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퀄리티 등은 최근 광주가 국제회의·박람회 심사에서 번번이 감점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 관광호텔 인프라는 ‘중급 중심’이라 평시 수요엔 대응하지만, VIP·해외 연사·바이어가 찾는 최상급 선택지는 아니다. 규모에 걸맞은 국제회의의 개

최는 물론 이용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같은 행사라도 최상·중·경제급이 고르게 있어야 참가자 군(연사·업체·스태프·관광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도시의 경우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5성급 호텔, 리조트, 쇼핑몰, 복합숙박 시설 등을 갖춰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

문제는 광주의 숙원사업이던 5성급 호텔 건립 역시 ‘시장성 벽’에 막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광주시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광주신세계 복합몰 등 주요 개발 현장엔 5성급 호텔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일신방직 개발사업자는 호텔신라, 하얏트, 메리어트 등과 운영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신세계 측은 자체 브랜드 호텔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운영사 미확정’, ‘협상 장기화’가 겹치며 안갯속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의 경우 사업 개시 6개월이 지나도록 호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협상 조건 미비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추후 5성급 호텔 건립이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는 2000년대 초반부터 “5성급 호텔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전국 5성 호텔 입점 확대 전략을 펼치는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국내외 대형 체인들도 광주 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최근 조선호텔이 전국 7개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광주에도 진입할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사업성 문제 등으로 확정된 사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경. 광주시는 2020년부터 마이스(MICE)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는 없다.

신세계, 전방·일신방직 등 대형 개발에서 호텔 부속시설이 빠지거나 축소될 경우 광주가 국제 행사 유치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부대 인프라는 ‘마이스 산

업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광분야의 한 전문가는 “‘호텔이 없으면 세계 행사는 없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라며 “최근 바뀐 관광환경과 마이스 산업 지형을 보더라도, 이미 자본력이 있는 타 지역은 적극적 호텔 인프라 확충과 연

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광주에 특급호텔 신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도심·북구·광산구에 업스케일 부티크·레지던스형·정갈한 3성을 보강해 ‘중’을 촘촘히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 캄보디아와 경찰주재관 증원·코리안데스크 협의

이 대통령, 캄보디아 총력대응 지시
프놈펜 여행경보 특별여행주의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겨냥한 취업 유인·납치·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자 외교부에 전면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와 현지 당국과의 공조 강화에 나섰고,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지난 8월에는 현지에서 우리 대학생 A씨가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캄보디아 외교 당국은 한국 경찰 주재관 증원과 ‘코리안 데

스크’ 신설을 협의 중이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3명이 근무 중이라 급증하는 사건에 상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최소 2교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력을 늘리고, 대사관 증원과는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청 내 한국인 범죄 전담 창구(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필리핀 사례처럼 현지 단독 처리에 한계가 있는 범죄에 한국 경찰이 정보와 기법을 지원하는 모델을 참고한다는 것이다.

본부 차원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외교부 영사안전국이 정책과 현장 실무를 함께 맡고 있어 해외 구급·피해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위기 대응, 예방 홍보, 피해자 지원 기능을 세분화하고 재외공관 영사·경찰 라인을 촘촘히 연계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근본적 과제로 자발적 가담 문제도 지적된다.

외교부는 11일 설명자료에서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스스로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현지 단속으로 일부 한국인 범죄자가 체포됐지만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불법 수익을 노린 가담자에 대한 제도·수사·처벌, 재유입 차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확대해 구조·수사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취업 미끼형 범죄 유입 경로 차단,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한 선제 경보, 귀국자·피해자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취업 준비자에게는 고수익 알선과 신원 불명 중개인을 즉시 의심하고, 공식 채널 확인 없이 계약·출국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시진핑, 김정은에 “북중, 운명 같이하는 동지”

“국제정의 공동수호” 전문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 및 지역 문제에 있어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국경절(10월 1일) 축전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답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는 훌륭한 이웃·벗·동지”라며 “전통적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굳건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상기하며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를 공동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적 친선의 계승·발양, 친선 교류·호혜 협력의 심화와 함께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공동 수호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박태성 내각총리는 평양을 방문한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반패관’ 공조를 강조했다. 중국 매체가 전한 ‘실질 협력 잠재력 발굴’ 언급은 북중 보도에선 빠졌다. 리 총리 대표단은 9일 입경해 전날 귀국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OK! Now Jeonnam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2025

2025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시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

2025. 10. 23.(목) - 2025. 10. 29.(수) 7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JeollaNamdo**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